

조용필, '록페' 같은 콘서트서 "반짝이는 너"...화끈한 20집 출정식

4년만의 콘서트... "4년이 40년 같았다" 소회 칠순 넘어 첫 콘서트...여전한 가창·연주력

삼에 노래가 있다는 건, 우리의 일상이 노래가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가왕' 조용필(72)이 26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D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펼친 콘서트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은 노래가 "위어! 이렇게 빛나"는 순간을 선사했다.

최근 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솔로가수 정은지가 리메이크한 '꿈'을 시작으로 이날 콘서트의 표문을 연 조용필은 '단발머리' "그대를 사랑해"를 연이어 들려주며 귀환을 알렸다.

조용필은 세 곡을 연달아 부른 뒤 "안녕하세요. 얼마만이에요? 제가 아마 가수 생활한 이후로 (콘서트를 하지 않은 지) 가장 긴 시간이 아닐까 해요. 4년이 40년 같았어요. 그림기도 하고 반갑고 기쁘다"고 밝혔다. 조용필이 콘서트를 연 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8년 말 같은 장소에서 펼친 데뷔 5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뽕스 투 유' 이후 처음이다.

조용필이 칠순을 넘겨 처음 연 이날 콘서트는 우리의 지난 기다림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다.

저녁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진 이날 날씨였지만 기대감이 가득한 공연장은 콘서트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올랐다. 오후 7시5분 공연장 조명이 꺼졌고 오후 7시10분께 조용필이 상징과도 같은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무대 위에 등장했다.

무대 전면에 돌출된 직사각형 모양의 장치 차츰엔 조용필 콘서트의 상징과도 같은 무빙 스테이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해당 장치는 무빙 대형 LED 스크린이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공중으로 치솟더니 약 45도 경사로 무대 위에 기울어져서 스펙터클한 경관을 선사했다. 무대 양 옆 대형 스크린을 비롯 크기와 용도가 저마다 다른 스크린 6개가 무대 전면을 꾸몄고 객석 양 전장에도 대형 조명이 설치돼 있었다.

LED 스크린은 네 번째 곡 '추억속의 재회'에선 마치 심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해줬다. 파도처럼 일렁이거나 폭포수가 떨어지는 듯한 실감나는 장면을 구현했다.

'물방초'에 이어 '그대여'를 들려줄 때는 조용필은 직접 기타를 잡고 연주력도 뽐냈다. '위대한 탄생' 멤버들이 기타리스트 최희선, 베이시스트 이태윤과 함께 모여 합주하는 모습은 록 밴드의 그것이었다.

이어서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스크린에 구현됐고 뮤지컬 '라이온 킹' 무대를 연상케 하는 사막이 이어 펼쳐졌다. 이어 지난 18일 공개한 첫 싱글 '로드 투 트윈드-프렐류드 원(Road to 20-Prelude 1)'에 실린 두 신곡 중 한곡인 '세렝게티처럼'을 들려줬다. 라이브로는 첫 공개였다. 무빙 대형 LED 스크린이 대각선으로 내려와 조록빛을 뿜어내며 공연장을 초원으로 만들어줬다.

조용필은 '세렝게티처럼'을 부른 뒤 "좋아요?"라고 객석에 물었다. "항상 녹음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궁금해하죠. (팬들이) 좋아하실까? 그저 그렇다고 여기실까. 결국 발표하고 나서는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곡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행운이죠"라고 기뻐했다.

객석에서 "부산에서 왔다"고 외치자 "(이번에) 저희가 사실 지방 공연을 하지 못해 아쉬워요. 서울에서만 4일간 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런데 지방에 가려면 이 장비를 다 끌고 가야해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만 하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지방 각지에서 오셔서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오랜만에 보니까 낮간지렵죠? 하하. 오글거리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추억 속에서 재회하는 느낌입니다. 같이 조용한 분위기로 옛날 발라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후 로깅한 분위기가 잠시 멈췄다. '친구여' '그 겨울의 찻집' '큐(Q)' '그대 발길에 머무는 곳에' 등처럼 이날 모인 1만여 관객이 함께 '대창'할 수 있는 노래들이 연이어 울려 퍼졌다.

조용필은 잔잔한 노래를 연이어 부른 뒤 객석을 향해 "남성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제 노래 중에서 '지구 위의 반은 남자 / 지구 위의 반은 여자'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여와 남)가 있죠. 오늘 공연장엔 3분의 1이 남성분들이 거 같은데, 의

외로 남성 분들이 많아요. (객석에서 '형님'이라고 외치자) 형 여기 있어. 아직 형이예요. 형님 아닙니다"라고 웃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트로트 풍으로 시작한 '여와 남'은 중간에 세련된 편곡이 인상적이었는데 조용필의 주문에 따라 남성, 여성 관객이 각각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위의 반은 여자"를 합창하기도 했다.

이날 상당수 편곡도 인상적이었다. '엄마야'라는 가사가 귀에 감기는 '고추 잡자리'는 블루스 신스팝, 팝 록의 편곡을 오갔고 본래도 국악 풍의 리듬이 인상적인 '자존심'은 우리 장단의 리듬이 한층 더 부각됐으며, 스크린을 붉게 물들인 '태양의 눈'의 경우 화끈한 심포닉 밴드를 연상케하는 사운드로 공연장을 꽉꽉 채웠다. 아울러 '자존심'을 들려줄 때 영상엔 단정 이미지들이 수를 놓았다.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어제 오늘 그리고'의 구수한 리듬, '못찾겠다 꾀꼬리'의 유틸 넘치는 편곡 역시 귀에 착착 감겼다. '원곡 자체에 가왕의 품위가 묻어 나 있는 '바람의 노래'는 라이브에서 더욱 근사했다.

건반으로 전주를 연주할 때부터 객석에 환호성이 넘친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자연스레 객석에서 때가이 나왔다. '세렝게티처럼'과 연작으로 불리는 이 곡에서 조용필은 청년성이 깃든 애수 넘치는 목소리를 들려줬다. 특히 20세기를 풍미한 그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라고 울부짖을 때 객석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쏟아졌다.

화룡점정은 지금부터였다. 질주하는 사운드의 '미지의 세계'에선 여전히 찌렁찌렁한 목소리를 들려줬고 '모나리자'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정체성이 록을 기반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왜 조용필이 한국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고 불리는지를 증명했다. 미국 록 음악의 대부이자 조용필보다 한 살이 많은 스프링스틴도 최근 정규 21집을 냈다. 조용필은 내년 말 정규 20집을 내놓을 예정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들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중장년은 물론 젊은 세대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안겼다.

조용필이 또 놀라운 건 정규 20집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이다. '세렝게티처럼'과 '찰나' 두 신곡이 실린 '로드 투 트윈드-



프렐류드 원'은 타이틀이 의미하듯 20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곡이다. 칠순이 넘어서 이런 대장정의 여정을 기획하고 그 신호탄 중 하나로 대형 콘서트를 여는 기획력 자체만으로도 조용필은 위대한 가수임을 증명했다.

'모나리자'로 본 공연을 마무리한 조용필은 앙코르에서도 록 페스티벌과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드디어 "반짝이는 너 흐트러진 나 / 환상적인 흐름이야 / 어쩐지 / 위어! 느낌이 달라"라고 노래하는 '찰나' 순서였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에서 고독한 내레이션을 들려준 조용필은 이 곡에서 경쾌한 '멜로디 랩'을 선사했다.

공연을 정리한 곡은 '여행을 떠나요'. 젊은 로커처럼 폭발적인 기운과 가창, 연주력을 보여준 조용필은 그렇게 20집을 위한 여행의 출정식을 화끈하게 열었다. 정규 19집 타이틀곡 '헬로'와 이 앨범의 선공개곡인 '바운스'를 들려주지 않았는데 전혀 아쉽지 않았다. 20집을 위한 콘서트의 세트리스트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이날 정확히 2시간 동안 23곡을 들려준 조용필의 목소리는 낭랑낭랑 더 젊었다. 올림픽 퍼주기콘서트 등 2010년대 조용필의 실용 모든 콘서트를 지켜봤는데 이날 힘이 빠졌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음을 낮춰 부른 곡도 없었다. 자세는 여

전히 꼳꼳했다. 체중이 3kg가 늘었다는데 더 건강해보였다.

또 '세렝게티처럼'과 '찰나'의 작사에 참여한 김이나가 최근 조용필의 모습을 얼마나 잘 관찰했는지도 목도한 순간이었다. "재미 없기로 소문났었던 내가 / 절망한 말에 실었이 웃고 많이 들뜨네"라는 '찰나'의 가사는 김 작사가가 조용필의 실제 모습을 토대로 썼다고 했는데, 실제 이날 조용필은 농담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웃었다.

예컨대 이런 말이다. "여기 오실 때 저 사람 어떻게 변했을까" 되게 궁금해하실 거 같았어요. 되게 많이 늙었을 텐데 더 말랐을 까 살 쪼들까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저 '확진'(확진) 받았어요. 살이 3kg 확 쪼들. 그래서 주름살이 없어졌습니다. 하하. 사실 저(코로나19에) 한번도 안 걸렸어요."

더 질어진 너스레·유머 감각까지 갖추게 된 조용필은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닌 유일한 아이콘이었다. 이날 객석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꽤 많았는데 정규 19집에 이어 이번 신곡도 젊은 기운을 뽐낸 덕분이었다. "오빠"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20~30대 여성들도 꽤 많이 들고 있었다. 모녀끼리 온 관객들도 꽤 많았다. 조용필 팬인 엄마랑 같이 공연장을 찾았는데 20대 후반 김현지 씨는 "팝을 좋아하는데 조용필 선생님께서 아이돌 이상의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윤여정·김민하 '파친코' 美 고담 시상식 작품상 수상



배우 윤여정 등이 주연을 맡은 한국인 디아스포라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 고담(Gotham)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애플TV+ 드라마 시리즈 '파친코'는 28일(현

올해 고담시상식 토포맷 시리즈 작품상

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3회 고담 시상식에서 토포맷(Long Format) 시리즈 작품상(Breakthrough Series)을 받았다. '퐁 포맷'은 회당 상영 시간이 40분 이상인 작품이 대상이다. 이 부문에는 '파친코'와 함께 '세브란스'(애플TV+) '스테이션 일레븐'(HBO) '디스이즈 고잉 투 허트'(AMC) '엘로우재킷'(쇼타임)이 후보 지명됐다.

이 작품은 재미포도 작가 이민진이 2017년 내놓은 동명 장편 소설이 원작이다. 지난 3월 공개된 드라마 '파친코'는 원작을 바탕으로 한

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며 모국인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일본과 미국을 떠돌아야 한 인종의 삶을 그린다.

윤여정·이민호·김민하 등이 출연했다. 주인공 '선자'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 김민하는 이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기상(Outstanding Performance in a New Series)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엔 실패했다.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고담 시상식은 미국 독립영화 지원 단체인 IFP(Independent Filmer Project)가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美 빌보드 '핫100' 톱10에 캐럴 4곡



28일(현지시간) 빌보드가 예고한 12월3일자 차트에 따르면, 이제 명실상부 고전이 된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워트 포 크리스마스 이스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이번 주 '핫100'에서 5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25위에서 20계단 뛰어 올랐다.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가 지난 주에 비해 각각 54%와 80%가 증가했다. 판매량도 57%가 늘어났다. 이와 함께 2011년 론칭한 '홀리데이(Holiday) 100 차트'에선 총 57주 중 52주 1위를 차지했다. 2015~2016년 이후엔 37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올 아이 워트 포 크리스마스 이스 유'는 캐리가 1994년 발표한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에 실린 곡이다. 캐리와 프로듀서가 함께 만들었다. 역시 연말마다 소환되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2003) 등에 삽입되며 지속적인 인기를 누렸다. 특히 스트리밍 플랫폼이 계절별로 제공하는 플레이리스트를 선호하는 청취자가 많아지면서 이 노래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2017년 12월 처음으로 '핫100' 10위권에 진입한 뒤 이

후 꾸준히 역주행했다. 발매 25년 만인 2019년 말 처음으로 '핫100' 정상에 올랐다. 이후 매년 '핫100' 정상에 소환되고 있다. 해당 차트에는 총 52주간 머물렀다. 매년 연말마다 차트에서 등장, 캐리에게 '성탄 연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농담 같은 진담도 나온다. '더 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곡은 매년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리의 19번째 '핫 100' 1위곡이다. 솔로 가수 중 최다 기록이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스'가 20개의 1위곡 보유로 해당 부문 최다 기록자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목 받는 건 캐리의 노래뿐만 아니다. 이번 주 '핫100' 톱10 안에 브랜다 리의 '록킹 어라운드 더 크리스마스 트리(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가 6위, 보비 헬름스의 '징글벨 록(Jingle Bell Rock)'이 9위, 미국 포크 가수 버 아이브스(Burl Ives)의 '징글 벨 록(Jingle Bell Rock)'이 10위다.

이와 함께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0집 '미드나잇스'의 타이틀곡 '안티-히어로(Anti-Hero)'가 이번 주 '핫100'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해당 차트에서 총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스위프트의 곡 중에선 두 번째 최장 1위 기록이다. 스위프트의 9개의 1위 곡 중 최장 기간 정상을 지킨 노래는 2014~2015년 '블랙 스페이스(Blank Space)'다. 당시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안티-히어로'는 '핫 100'에 1위로 데뷔한 64세의 싱글 중 5주 동안 정상을 차지한 12번째 곡이다. 글로벌 슈퍼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버터(Butter)'가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핫100'에서 7주 동안 1위를 차지한 이후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아쉽게 졌지만...안정환·김성주 시청률 20% 넘겼다

우루과이 전 18.2%보다 시청률 더 높여

안정환·김성주·서형욱이 월드컵 중계를 맡은 MBC가 시청률 20%를 넘기며 지상파 방송 3사의 월드컵 중계 경쟁에서 타 방송사를 다시 한 번 압도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MBC는 28일 오후 8시35분 시작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의 조별 예선 2차전 가나 전 중계에서 전국 평균 시청률 20.0%를 기록했다. 지난 24일 열린 우루과이 전 시청률(18.2%)보다 1.8%p 증가한 수치다. 서울에선 22.2%, 수도권에선 21.6%였고, 광주에서 22.9%로 가장 높았다. SBS는 12.8%, KBS 2TV는 7.6%였다.

이날 가나전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되는 경기였던 만큼 방송 3사 시청률이 40.4%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다만 우루과이 전의 41.7%와 비교할 땐 소폭 감소할 수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두에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치른 조별리그 2차전에서 2-3로 졌다.

이로써 조별 예선 성적 1무1패(승점1점)를 기록, 자력 16강 진출이 어려워졌다. 대표팀은 전반에 2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에 조규성이 2골을 만회해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다시 가나에 골을 내줘 2-3으로 패했다.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전은 다음 달 3일 열린다.